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카불의 한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

/신화-연합뉴스

“수염 기르고 청바지 태워”

탈레반 첫날 달라진 삶

일자리 잃고 부르카 찾는 여성 전통의상으로 갈아입는 남성 새벽부터 은행 ATM 앞 대기 6시간 기다렸지만 현금 동나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끝났다. 거리에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밤 11시 59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탈레반은 축포를 터뜨리며 아프간 국민과 승리를 함께한다고 말했지만, 도시 전역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지난달 31일 완전한 탈레반 치하에 놓인 아프간에서 평소와 다른 하루를 시작한 아프간 시민들의 이야기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아리파 아마디(가명)는 이날 아침 청바지와 탈레반의 눈엣가시가 될만한 웃음을 전부 불태웠다.

그는 “오빠가 나가서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를 사다 줬다”며 “난 울면서 청바지를 태웠고 동시에 희망도 같이 불태웠다”고 말했다.

아마디는 지난 20년 동안 사랑의 지원을 받는 정부 아래서 교육과 고용 등 일상에 자유를 누렸던 세대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파리에 있는 세관 사무소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으나 3주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 상당수가 탈레반이 사무실을

떠나라는 요청에 쫓겨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긴 수염을 한 남성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아마디는 “다는 그 무엇보다 날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카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네사르 카리미(가명)는 탈레반 치하의 첫날 아침을 은행 입구에서 시작했다.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인 아침 6시 정도에 갔지만 이미 대기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12시까지 기다렸지만, 은행에서 돈이 떨어졌다며 인출기를 닫아버렸다.

탈레반은 지난달 28일 은행 영업 재개를 명령했지만 1인당 출금을 일주일당 2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수백 명이 있었고 탈레반은 막대기로 사람들을

때렸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결국 빈손으로 집에 왔다”고 말했다.

화려했던 수도의 풍경은 탈레반 치하의 금욕적인 분위기에 맞춰 뒷걸음치고 있다.

카리미는 “카불은 이전까지만 해도 아프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도시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1기 통치(1996년-2001년) 때와는 달리 유희적인 면모를 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앞서 지방 경찰청장을 처형하거나 부르카를 쓰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살하는 등 과격한 행태가 전해지면서 탈레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연합뉴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대원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럭을 타고 수도 카불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아프간 ‘인도적 재앙’ 경고

구테흐스 사무총장 국제사회 도움 호소 “기본 서비스 붕괴 위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촉구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아프간에서 깊어진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아프간에서 기본적 서비스가 완전히 붕괴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 아프간 어린이와 여성, 남성에게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유엔) 모든 회원국이 암흑의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프간인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개월에 걸쳐 아프간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며 유엔이 다음 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간 인구의 거의 절반인 1,800만명에게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프간인 3명 중 1명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간에서 5세 미만 어린이의 과



반이내년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간) 사람들은 매일 기본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뭄과 찾아올 혹독한 겨울을 생각할 때 아프간인들에게 추가로 음식과 쉼터, 보건용품 등이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국 백신 맞을래, 해고될래”

미얀마 공장 노동자들 군부에 선택 강요받아 “부작용은 책임 안 져”

미얀마 쿠데타 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장 노동자들이 중국산 백신 접종과 해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노동운동가인 뗏땃 아웅은 최대 도시 양곤의 공장 노동자 중 다수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아웅은 “대부분 노동자는 접종을 두려워한다. 해당 백신에 대해 자세히 듣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공장 측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될 거라고 한다. 이게 많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지만, 공장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웅은 중국산 백신을 맞은 뒤 아프게 될 경우에도 공장 측이 휴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양곤의 한 봉제 공장 노동자들을 인용, 지난달 21일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뒤 노동자 중 일부가 심하게 맘을 쥘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근로자는 매체에 “직원 한 명이 백신을 맞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다른 남성 직원은 백신을 맞은 뒤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7-8월 시노팜 백신 수백만 회분을 미얀마에 제공했다.

그러나 군정에 맞서는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조 웨이 소 보건부장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WHO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동남아의 빈 라덴’ 함발리 발리테리 19년 만에 법정

‘동남아의 빈 라덴’이라 불리던 발리테리 용의자 함발리(사진) 등 3명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사건 발생 1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AP통신, 콤파스 등에 따르면 2002년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발리테리로 2003년 체포된 인도네시아인 함발리(57·본명 리두안 이사무딘)와 말레이시아인 부하 2명이 전할 관타나모 군사법정에 살인, 테러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발리테리에서는 2002년 10월 12일 나이트 클럽 폭탄테러로 202명이 숨졌는데, 희생자는 호주인이 88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 38명, 미국인 7명 등이었다.

당시 국제 공조 수사 결과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인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

라미야(JI)가 배후조직으로 잠겼고, 2003년 8월 태국에서 JI 작전참모 함발리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 작전으로 체포됐다.

함발리는 알카에다 수괴 오사마 빈 라덴과 비교해 ‘동남아의 빈 라덴’으로 불리며,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테러 지도자로 각국 수배를 받은 인물이다.

JI 소속 말레이시아인 부하 모하멧 나지르 빈 렵(44)과 모하멧 파르크 빈 아민(46) 등 2명도 2003년 잇달아 체포됐다.

미 CIA는 함발리와 이들 3명을 ‘비밀 구치소’에 수감했다가 201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감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이제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관심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법정에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미국에 함발리 송환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권 탄압 비판을 받아온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약속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테러 용의자 등 수용을 위해 문을 열었다. 관타나모에 수감된 779명 가운데 39명이 현재 남아있다. 이들 39명 중 10명은 송환 권고 결정을 받은 상태다.

당국은 나머지 689명에 대한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emart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